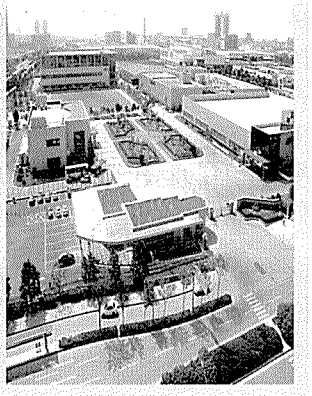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2단지 기공식



삼성전자가 중장기 반도체 양산 능력 증가 및 중국 반도체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內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반도체 조립생산라인을 추가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7일 중국본사 박근희 사장, 반도체총괄 지대섭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과 옌리(閻立) 쑤저우 시장, 왕진화 (王金華) 쑤저우공업원구 서기 등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 약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쑤저우 반도체 사업장 제 2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쑤저우 반도체 사업장 제2단지는 중국 쑤저우공업원구 內에 총 8만 5천평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2단지 위치 : 중국 강소성 소주공업원구 봉리가, 中國 江蘇省 蘇州工業園區 鳳里街)

이번에 신규 건설하는 반도체 라인은 삼성전자 쑤저우 사업장 제1단지에서 제품 조립 및 검사用으로 가동 중인 기존 3개의 라인에 이어 4번째 조립 생산라인으로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황창규사장은 지난해 11월 북경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2007년까지 중국 반도체시장에서 1위 제품을 10개로 확대하고, 2010년 까지 중국 반도체 매출 55억불을 달성하겠다는 현지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LG전자, 러시아 리츠칼튼 호텔 LCD TV 독점 공급

LG전자가 모스크바 5성급 호텔에 TV를 독점 공급하며 현지 VIP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VIP호텔에 TV를 독점 공급하는 것 자체가 현지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고, VIP급 호텔 고객에 대한 브랜드 노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TV업체의 호텔 공략은 큰 의미를 갖는다.

LG전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리츠칼튼에 LCD TV를 6월까지 독점 공급한다. 이 호텔의 완공은 6월.

LG전자가 리츠칼튼에 공급하는 물량은 32인치 LCD TV 410대를 비롯해 42인치 PDP TV 12대, 60인치 PDP TV 2대, DVD플레이어 410대 규모다.

32인치 LCD TV와 DVD플레이어 각 410대는 호텔 객실에, 60인치 PDP TV는 호텔 로비, 42인치 PDP TV는 호텔 바, 휘트니스 센터, 회의실 등에 설치된다.

LG전자 CIS지역대표 안성덕(安成德) 상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설비를 갖춘 리츠칼튼 호텔이 다른 유수의 기업을 물리치고 LG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LG 브랜드와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츠칼튼 호텔은 러시아의 심장부 크레물린궁 바로 옆의 붉은 광장 입구 맞은편에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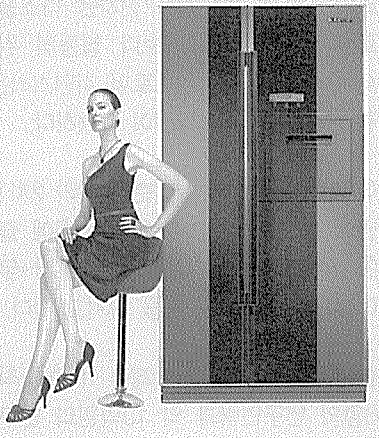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세계적 아티스트 '매튜 바니' 전시회..	2006.07.08
2	삼성전자 디지털 TV "파브(PAVV)", 누적판매..	2006.07.07
3	삼성 휴대폰, 영국 소비자들에게 최고 인기..	2006.07.07
4	삼성전자 차세대 IP 통신장비, 중국 공안부...	2006.07.06
5	삼성전자, 美서 '슈퍼맨'과 공동마케팅	2006.07.06
6	삼성 애니콜, 「릴레이 봉사」로 나눔경영 앞장	2006.07.05
7	삼성전자 점자 휴대폰, IDEA 2006 금상 수상	2006.07.03
8	삼성전자, 60나노 2기가 원낸드 개발	2006.06.28
9	삼성전자, 상반기 DMB폰 시장 석권	2006.06.28
10	三星電子 은나노 세탁기 세계 언론 시선 집중	2006.06.27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브라질서 'LG 아트쿨 컨테스트' 개최	2006.07.05
2	LG전자, 릴레이「사랑의 헌혈」캠페인 전개	2006.07.04
3	LG전자 벽걸이 프로젝터, 세계 3大 디자인상..	2006.07.03
4	LG전자, 도미니카 대통령 환영 만찬회 열어	2006.07.01
5	LG전자, 타임머신TV 판매 10만대 돌파	2006.06.30
6	LG전자, 레드닷 디자인 '올해의 디자인팀상'..	2006.06.28
7	LG전자 휘센 홍보영화 '스티비 어워드' 수상	2006.06.26
8	LG 휴대폰, 동남아 시장 프리미엄 브랜드로..	2006.06.20
9	LG전자,「디자인 경영」선포	2006.06.16
10	LG전자 휴대폰광고, 美 최고 마케팅 광고상..	2006.06.12

위치하며, 舊 소련 시절인 1970년에 세워진 '인뚜리스트' 호텔을 허물고 약 2만 평 규모로 지상 11층, 지하 5층으로 세워지는 410 객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이다.

대우일렉 출근이 1시간 앞당겨졌다.



매각작업이 한창인 대우일렉의 임직원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출근시간을 1시간씩 앞당기고 '비상근무'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일렉은 옛 대우전자 시절부터 정규 출근시간 오전 9시보다 1시간 더 빨리 출근하는 전통을 갖고 있던 터라 출근을 1시간 더 앞당기면서 동이 트기 전에 회사에 도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새벽 출근 진풍경은 이승창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달부터 출근을 1시간 더 앞당기기로 결의하고 실천하면서 시작됐다. 회사의 운명을 가름할 매각작업을 앞두고 임원들이 업무시간을 늘리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현재 임직원의 70%가량이 출근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긴 상태다.

대우일렉 홍보팀 관계자는 "매각을 앞두고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1시간 일찍 출근하면서 무엇보다 하루 일과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대우일렉은 이에 앞서 옛 대우전자 시절부터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1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대우일렉 한 임원은 "대우전자 연구소가 서울역앞 대우빌딩에 입주해 있을 당시 유독 대우전자 직원들이 가장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 '불이 꺼지지 않는 대우전자'라는 별칭이 붙곤 했다"며 "최근 회사 매각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을 서두르면서 옛 대우전자 전성기 때의 추억이 자주 떠오른다"고 말했다.

KEC, 미국 VISHAY SILICONIX와 T-MOS 특허 라이선스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

국내 최대의 개별반도체 회사인 KEC는 미국의 VISHAY SILICONIX와 TRENCH-MOSFET과 관련한 특허 라이센스 및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VISHAY SILICONIX는 LOW VOLTAGE MOSFET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1위의 공급업체이며, 특히 TRENCH-MOSFET 관련분야에서는 기본 특허뿐 아니라 이 분야의 많은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다. TRENCH-MOSFET은 TRENCH 공정을 사용하여 Gate를 형성함으로 저항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 표면실장형의 고효율 반도체로, 최근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요 확대로 TRENCH-MOSFET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KEC는 금번 계약으로 VISHAY SILICONIX가 보유하고 있는 TRENCH-MOSFET에 관한 모든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획득 및 기술도입으로 국내 최초로 TRENCH-MOSFET을 지난 3월 준공식를 가진 경북 구미사업장의 MOS FAB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KEC는 KEC의 TRENCH-MOSFET 제품에 대한 고객의 IP 문제에 대한 의문과 기술수준,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Low Voltage Mosfet의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내 Low Voltage Mosfet 시장의 규모는 년간 2,500억원 규모로 현재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KEC는 국내외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 2010년 Low Voltage Mosfet의 판매를 1,500억원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레전자, 모니터 일체형 썬클라이언트 공급시작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이레전자는 산업용 PC시장을 목표로 개발한 모니터 일체형 씬클라이언트를 서버기반 컴퓨팅(SBC, Server Based Computing) 솔류션개발업체인 틸론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레전자는 6월중으로 1,000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더욱 주문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제품 단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가 제품이므로 대당 40만원 정도 하는 일반 모니터보다 2배 가량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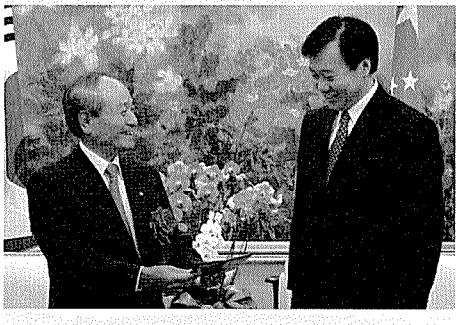
이번에 공급되는 모니터 일체형 씬클라이언트는 이레전자 최고 사양의 LCD 모니

터(ELM700K, 900K)와 틸론사의 컴퓨팅 기술이 접목된 IT 컨버젼스 제품이다. 양사는 이 제품이 씬클라이언트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레전자는 7월 중으로 AMD 지오드 LX 프로세스를 채용해 설계한 노트북 타입의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인 M-BOOK과 지상파 수신용 DMB가 탑재된 동영상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2.5인치 PMP 'FOCE F9' 의 출시를 준비중이다.

정문식 이레전자 대표는 "회사가 개발중인 신제품들을 조기 출시, 하반기 특수가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시장에서 첨단 디스플레이 IT기업으로 승부하여 선두기업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 · 중IT산업단 일행, 광전자(AUK-D) 공장 방문



지난 6월 21일, 오명 전 과학기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한 · 중 IT협력단'이 광전자 다롄유한공사(AUK-D)를 방문했다.

25명으로 구성된 협력단 일행은 한국과 다롄의 IT산업의 발전과 투자협력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한 감사와 IT교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다롄시를 방문하던 중 다롄시에 진출해 있는 IT 선두업체를 방문하기로 하여 광전자(AUK-D)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오명 전 부총리는 광전자가 진출해 있는 다롄시에 대한 투자 환경은 어떠냐고 묻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오명 전 부총리와 함께 '한 · 중 다롄 IT산업 협력단' 으로 참가한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양국 IT산업 발전을 위해 다롄 세관의 통관간소화 취지를 되살려 신속한 통관절차 및 편의 제공, 다롄 진출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조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양질의 기술자 배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다롄시 정부에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오명 전 부총리는 한,중 IT산업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다롄시 명예시민이 됐다. 중국 다롄시 샤 더런 시장으로부터 한국과 다롄시 IT산업의 발전과 투자협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전 부총리는 "다롄시의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에 보답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왔다"며 "앞으로 직항기 편수를 현재 주 14편에서 주 42편으로 늘려 한국 국적기 21편이 처음으로 취항하게 되는데 양국 IT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SDI, 3D AMOLED 세계최초 개발

디지털 디스플레이 & 에너지 전문기업인 삼성SDI가 세계최초로 AMOLED를 활용한 고해상도 모바일 3차원(3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지난 6월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대각선 화면 길이 4.3인치 크기로 WQVGA (480×272)를 구현할 수 있어 3차원 디스플레이 중에 세계 최고 해상도의 제품이다.

이 회사는 독자 개발한 시분할(視分割) 방식을 AMOLED 3차원 디스플레이에 적용, 화면 1장이 양안(兩眼) 각각에 구현되는 속도를 기존보다 2배이상 향상시킨 120Hz를 실현함으로써 고해상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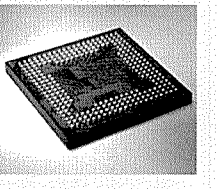
기존에는 2차원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크기로 3차원 화면을 구현하게 되면 해상도가 50%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3차원 화면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로 응답속도가 LCD보다 월등히 뛰어난 AMOLED를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색감, 끊김없는 입체영상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3차원 화면뿐 아니라 2차원 화면도 함께 구현할 수 있어 기존에 즐기던 2차원 컨텐츠도 모바일 기기에서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삼성SDI는 '05년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해 6명의 연구인력과 약 1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세계최초, 최고 해상도의 AMOLED 3차원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

LG이노텍, 세계 최소형 고집적 지상파 DMB 모듈 2종 개발



LG이노텍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상파용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모듈2종을 개발하여 본격 양산 중에 있다.

지상파용 DMB 모듈은 방송국에서 송출된 지상파 방송신호를 휴대폰에서 받은 후, 그것을 영상과 음성신호로 분리해주는 부품이다.

LG이노텍이 개발한 지상파 DMB모듈 2종은 원하는 주파수를 선국, 증폭해 주는 세계 최소형 RF 모듈과, 지상파 방송시청에

필요한 Base Band, AV, SDRAM 기능을 하나의 모듈에 담아, 실용성을 극대화한 수신단 통합 모듈이다.

이 통합 모듈은 우수한 RF 설계 기술 및 고밀도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여러 가지 부품이 차지했던 공간을 최소 크기로 압축시켜, 휴대폰 업계가 단말기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조 공정도 대폭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준다.

이 회사의 DMB모듈은 방송신호 수신기능,방송채널 선곡기능,아날로그 신호 를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기능, Base Band Processing, AV Decoder 등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갖추고 있다.

LG이노텍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지상파 DMB 모듈 2종은 크기는 세계 최소형이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이들 모듈을 장착하면 지상파 DMB 기능 전부를 구현할 수 있어 슬림폰에 최적의 부품"이라고 밝혔다.

자화전자 "2010년 매출 5,000억" 창립 25주년 비전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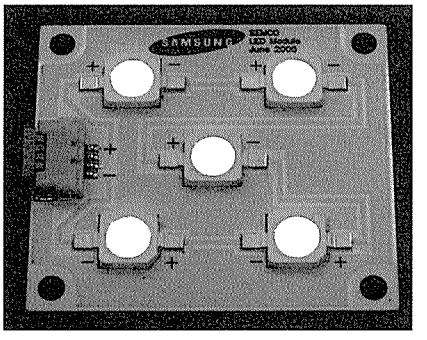
휴대폰용 진동모터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자화전자(대표 김상면)가 창립 25주년(4월25일)을 맞아 2010년까지 매출액 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상면 대표는 지난 5월 24일 "3대 신성장 사업으로 디지털 멀티모바일 부품과 평판디스플레이, 고부가가치 미래형 자동차 부품 등을 선정했다"며 "2010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단일 아이템을 3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존 사업군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과 신기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해 이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올해는 특히 신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회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부품산업 트렌드에 맞춰 회사가 보유한 마그네트, 세라믹 등 핵심 소재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디지털 컨버전스 부품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기, 경관 조명용 고출력 LED 'SUNNIX' 본격 양산



삼성전기는 외부 경관 조명용 1와트(Watt)급 고출력(high power) LED 'SUNNIX'(써닉스)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지난 6월 15일 밝혔다.

고전력 LED는 1와트 이상의 高휘도 LED를 의미하며, 휘도가 높아 옥외 간판, 외부 사인물 등의 광원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외부 사인물에는 주로 네온, 할로겐, 형광등 등이 광원으로 사용됐으나, 전력 소비가 높고, 소음 문제 및 환경유해물질 함유 등의 이유로 최근 LED 조명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LED 조명은 소비전력이 네온의 10%, 형광등의 20% 수준이며, 수명은 반 영구적이어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또한 점(點) 광원적 특성(타 조명은 線광원)으로 다양한 색상 및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구현 가능해 주목도를 높일 수 있어 외부 사인물 광원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고출력 LED의 경우, 소비전력이 높아 발생되는 열을 해결하기 위해 '방열(放熱)'이 필수적인데, 선진사들이 방열 관련 특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웠다.

삼성전기는 독자구조의 패키지로 열저항계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러한 특허 문제를 해결했으며, 경쟁사 대비 방열과 광학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국내외 조명업체와 협업을 통해 1와트급 고출력 LED 조명시장의 매출을 확대하고, 점차 자동차 전조등, 센서등, 실내등, 형광등 등 응용 분야를 일반 조명으로 넓혀 사업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LG CNS, 브리티시 텔레콤을 상암 IT 센터 고객으로 유치

LG CNS가 브리티시 텔레콤 코리아와 IT 인프라 사업 부문의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LG CNS 인천 IT 센터 대회의실에서 LG CNS 인프라서비스부문 최기무 부문장과 Kevin Taylor 브리티시 텔레콤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등 양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티시 텔레콤 통신노드의 상암 IT 센터 유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월 5일 밝혔다.

LG CNS 상암 IT 센터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內 대지 면적 1,440여 평, 지상 12층/지하 4층 규모의 연면적 13,500여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센터로서 올 12월말 준공 예정이다.